

# 민주노총 사수투쟁 열 하루째

8 민주노총 | © 승인 2008.08.03 20:41

## “이명박 정권과 민주노총 간 1:1 싸움 아닌 국민촛불 함께 하는 싸움인 만큼 전면 대응”...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 본부 성원들 대거 상경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공안탄압에 맞서 사수투쟁에 돌입한지 열 하루째를 맞았다.

3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 성원들이 총연맹 지도부와 민주노총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을 찾았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들이 휴일 바쁜 지역현안들을 제치고 민주노총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5~6시간이나 걸려 대거 상경한 것.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부터 이랜드 투쟁 등을 빌미로 공안탄압이 극렬히 자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지역만 해도 지난해 이랜드 투쟁과 11월 노동자대회 상경투쟁, FTA투쟁 관련해 1백여 명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쑥대밭’이란 말이 무색치 않다.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지역본부 성원들을 만나 일일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오늘 광주전남지역 동지들이 이렇게 민주노총을 사수하러 올라와 준 것이 너무 고맙고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 활동도 활발하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국민에게 보내는 동영상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격려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조합원과 시민, 네티즌들로부터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체포, 구속한데 이어 이석행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 2개 중대를 풀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계급 특진이 걸렸다는 제보다. 소문에 의하면 총연맹 사무총국 성원들에 대해 전화도청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7월24일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을 배치해 체포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긴급 투쟁 본부회의를 열어 대응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시기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조계사나 명동성당 등 종교기관에 들어가거나 잠적함으로써 검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경우 이명박 정권과 민주노총 간 1:1 싸움이 아니라 국민촛불이 함께 하는 싸움인 만큼 과거와 달리 전면 대응키로 했다. 힘이 부족해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명박 정권 공세에 맞서 최선을 다해 전면에서 싸운다는 것이 주된 기조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총연맹 사수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24일 당일 “민주노총을 지키자”며 촛불소녀들과 시민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주된 공세 과녁을 민주노총으로 돌려 집중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이제 국민이 나서서 민주노총을 지키겠다고 촛불을 밝혀들었다.

그 후 민주노총 건물에는 늘 산별 및 지역본부 조직 성원들과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상주하며 경찰 움직임을 주시하고 만일 사태에 대비해 긴장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사수투쟁 열 하루째를 맞은 8월3일,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노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성원들이 사수투쟁에 돌입했다. <홍미리기자/노동가세계>

